

책을 읽는 버릇과 습관들

조선 세조 때의 名臣으로 「금강경」 등 불경의 번역 및 간행에 큰 공을 세웠던 金守溫은 책을 몹시 즐겨 읽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버릇이 꽤나 독특했던 것 같다. 「海東名臣傳」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책장을 낱장으로 찢어 벽이나 천정에 붙여놓고 앉아서 고누워서 항상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책이건 남에게 빌려온 책이건 가리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귀중본을 빌려준 지인이나 문우들이 자주 낭패를 보았다고 하니, 건국 초기의 근엄한 도학자들에게는 드문 탈속과 파격의 풍모를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문학평론가 김병익씨가 언젠가 사석에서, 고 김현씨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들려준 한 프랑스 학자의 경우도 독특한 독서습관이란 점에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난다. 이 사람은 기차여행을 할 때면 그때마다 늘 한 보따리씩의 책을 챙겨서 여행 내내 책을 읽어오는데, 읽던 책이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내용이 보잘것 없다가 하는 식으로 일단 「판단」이 내려지면 달리는 차창 밖으로 그 책들을 확확 내던진다는 것.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여행하다보면 애초 한 보따리나 되던 책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불과 몇권도 채 안되기 마련이라고 한다.

최근 민음사에서 출간된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수록된 불문학자 김화영 교수의 글 「책, 독서, 교육」에도 책읽기와 관련된 독특한 에피소드들이 삽입돼 있어 흥미를 끄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유학시절 그를 가르쳤던 한 기호학 교수의 집을 방문해서 느낀 「고통」과 「위기의식」을 솔직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다. 「가령 어떤 학자의 논리가 옳지 않다고 말할 경우 그 예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그 학자의 저서에서 한 페이지 분량은 족히 될 내용을 줄줄이 외워서 인용」하는 「사진식 기억력」의 소유자였던 그 교수의 집은 「책의 요새」였다.

“방에 놓인 침대, 서재의 책상과 의자를 위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 집안이 문자 그대로 책 뿔이었다. 그것도 벽에 붙여 세운 서가에 책을 꽂은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서고 처럼 방마다 여러 줄로 세운 서가에 책들이 숨막히게 도열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수는 자기 책상 위에 쌓인 책들과 메모지들을 쑥 밀쳐놓고 그 위에 걸터앉으면서 나는 손님이 라고 당신의 하나 뿐인 의자에 앉도록 했다. 그 서고 속에 들어앉아서 내가 그날 그 교수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전혀 기억할 수 없다. 요새처럼 포위하고 있는 책들의 삼엄한 무계에 놀려 나의 모든 사고기능이 정지되는 듯하던 고통스런 기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내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책들보다도 더 뻑뻑한 책들이 그 교수의 머리 속에도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을 생각하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위기의식처럼 다가들었다.”

독일작가 알폰스 슈바이게르트의 소설 「책」에도 비슷한 풍경이 발견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1692년 한 독일인 여행자가 플로렌스의 괴팍한 서적狂 막리아베치의 집을 방문했던 경험을 기록한 여행기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그의 집에는 책 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가구라고는 책들이 쌓여 있는 의자 여섯개와 그가 누워 자는 매트리스 하나 뿐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책들이 차곡차곡 발코니에 이르기까지 쌓여 있었고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통로만 있었습니다. 계

단도 책들로 뒤덮여 있어 지나갈 때마다 책이 밟힙니다. 곳간도 책으로 가득차 있고 마당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도 빙 둘러 책들이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작은 책이라도 서가의 어디에 꽂아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서 누가 어떤 책을 찾아달라고 하면 금방 찾아왔습니다.”

김화영 교수는 앞의 글에서, 한편으로 책이 없는 방에 대한 선망도 숨기지 않는다. 공부벌레로 유명했으면서도 책은 별로 많지 않았던 한 동료의 이야기가 그것인데, 그에게 책이 적은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한가지 책을 읽기 시작하면 꾸준하고 꼼꼼하게 그 책을 다 읽었다. 다 읽은 책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쌓이면 종이상자 속에 집어넣어 치워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들만 책장에 꽂아두고서 하나씩 읽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스로 「무질서」하다고 표현한 김화영 교수의 책읽기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책상 위에 여러권의 책을 잔뜩 쌓아놓고 이 책을 읽다말고 또 저 책을 들여보려는가 하면 그건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다른 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을 나서는데 것이 나의 무질서한 독서습관이다.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책가방이 터져라고 책을 가득 넣어가지고 고향집으로 떠났었다. 그러나 개학이 되어 돌아올 때 보면 실제로 읽은 책은 엄숙한 결심과 함께 가방 속에 넣어간 서적이 아니라 시골집 책장에 이미 꽃혀 있던 소설책이 대부분이었다.”

출판저널

통권 제147호 / 1994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한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용일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집/바바 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5,000원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수광스런 본질/최시림 옮김/4,000원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정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5,000원

파라독스 이슬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슬 우화/로버트 켈러 지음/김정우 옮김/3,8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뎬 등 중국의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 외 지음/이희철 엮고 옮김/3,500원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판 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푸나의 추억

라즈나쉬의 첫 한국인 제자였던 홍신자의 인도에서의 구도 체험/홍신자 지음/5,000원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톰킨스 외 지음/황정현 옮김/7,500원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어드 T. 스톨딩/정장영 옮김/7,000원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소설로 풍자한 인류 진화사. 200만 년을 단숨에, 웃으며 읽는다/로이 루이스 지음/김석희 옮김/4,800원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추장, 용사, 아나톨의 말을 통해서 읽는 삶의 의미/시애틀 추장 외 지음/류시화 옮김/4,500원

사람을 살리는 단식

단식으로 암을 치료한다—이론·방법·인상을 망라한 단식 실천 지침서/장두석 편지/6,500원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 지음/김종오 옮김/6,500원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6,500원

이집트의 신비

거대 유적의 비밀과 정신적 유산의 신비를 깨는 영적인 이집트 탐험/폴 브러튼 지음/이규형 옮김/6,500원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4,500원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명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옛 詩情을 더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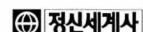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지/12,000원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겨진 秘典(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 문화/권태훈 지음/12,000원

民族秘傳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지음/정재승 편지/6,500원



전화 733-3135 팩시 739-8791 ■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 741-7033 ■ 심신정화의 새로운 도량 정신세계문화원 747-7033